한국전기안전공사, 준·특임 감사인 청렴 워크숍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준감사인과 특임 감사인을 대상으로 청렴 의식 제고와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제14회 준·특임 감사인 청렴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사가 운영 중인 준감사인과 특임 감사인 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정된 감사 인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율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상임감사의 청렴 특강을 비롯해 우수 준감사인 포상, 준감사인 제도 개선 사항 및 종합감사 중점사항 공유가 이뤄졌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 인권, 내부통제 등 현장 중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내부신고 모의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허정환 상임감사는 "안전하고 청렴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감사인과 특임 감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사인은 사후 지적과 감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지원하고 조직의 성장을 돕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1년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준감사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공사 최초로 특임 감사인 제도를 도입했다. 특임 감사인은 부족한 감사 인력을 보완하고 감사 착안사항과 감사 시나리오 발굴, 교차·협업 감사 등에 참여해 감사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어린이 꿈나무 골프 체험 프로그램' 성료

남원상록G.C·남원대산초, 4년째 교육 기부… 장학금·골프 체험으로 지역 인재 육성

공무원연금공단 남원상록골프장과 남원대산초등학교가 함께 추진한 '어린이 꿈나무 골프 체험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남원상록G.C와 남원대산초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4년째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꿈나무 골프 체험 프로그램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 인프라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남원대산초등학교 학생 10명이 참여해 골프 기본기 교육과 필드 체험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원상록G.C 관계자들과 학교 측 교직원, 골프 전문 강사가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골프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자신감을 얻으며 골프 기술을 익혔고, 필드 체험을 통해 성취감과 도전 정신을 키웠다. 양 기관의 협력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남원상록G.C는 지난 3월 새 학기를 맞아 남원대산초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업을 응원한 바 있다. 장학금 지원에 이어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기부 활동을 실천했다.

김종영 남원대산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넓은 필드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뜻깊었다"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준 남원상록G.C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묵 남원상록G.C 대표는 "아이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대산초등학교는 2019년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 안해천 선수를 배출한 학교로, 교내에 실외 골프 연습장과 실내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갖추고 전문 강사를 통한 골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장수 계북면지사협, 독거 어르신 이미용 쿠폰 지원

장수군 계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재수)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다시 찾은 젊음,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 꽃단장하러 가는 날' 이·미용 쿠폰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 어르신들에게 외모를 가꾸는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지역 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쿠폰을 전달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는 물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기억나눔 김치 봉사' 실시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는 4일 대한적십자사 군산시협의회와 연계해 관내 치매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기억나눔 김치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일상 속 영양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치매환자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센터 직원과 대한적십자사 군산시협의회 회원 등 20여 명은 정성껏 담근 열무김치와 레토르트 삼계탕, 구움빵, 손소독제 등 지원 물품을 준비해 치매환자 가구 50곳을 직접 방문·전달했다.

특히 봉사자들은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치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정서적 지지 활동도 함께 펼쳐 의미를 더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진안군, '2026년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13일까지 진행

리더십 특강·소통·힐링체험으로 여성 역량 강화

진안군은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북권환경성질환치유센터(진안고원치유숲)에서 관내 농촌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여성지도자의 리더십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서 역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읍·면별 회장단을 비롯한 핵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 3회에 걸쳐 회차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호협력과 선도적 리더십으로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드는 농촌 여성 리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교육은 농촌여성리더로서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한 리더십 특강과 회원 간 소통·화합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리더의 자질을 다지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 참가자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천연술 마시지 △심신치유 프로그램 △혈관나이 측정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천연염색 △허브소금 만들기 △공기정화 식물 심기 체험 등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호원대, 결혼이주민여성 취·창업 교육 협약 맺어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역 내 결혼이주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김제시가족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호원대는 4일 김제시 가족센터와 '지역수요 기반 결혼이주민여성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결혼이주민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확대, 기초 직무역량 형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지역수요 기반 비학위과정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대상자 모집 및 참여 지원 △교육성과 공유 및 후속 연계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경찰서, 학교 주변 특별치안활동 전개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오는 7월 22일까지 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주변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특별 치안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이 기간 중 학교 주변, 학생들이 이용이 많은 통학로와 공원, 학원가를 중심으로 순찰 거점을 지정해 등·하교 시간대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야간·심야시간대에는 지역관서별 공원·산책로, 다중이용장소, 112신고 다발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점 순찰 장소로 선정하여 이상 동기 범죄 등 중요 범죄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